고 정경모선생 유해봉안 1주기 추도 및 묘비제막식

2022년 4월2일 오전11시

마석모란공원 정경모선생님 묘역앞

주관 자유언론실천재단

행사 순서

경과 보고 - 이영순 자유언론실천재단 사무국장
추 도 사 - 함세웅, 임재경, 이자훈, 이부영, 조성우
추 도 가 - 손병휘
묘비 제막
유족 인사

경과 보고

- 2021년 2월 21일
  정경모 선생 일본 요코하마 히요시에서 별세
- 2021년 4월 2일
  정경모 선생 유해봉환 추모식을 가진 후 마석모란공원에 안장
- 2021년 9월 25일
  문익환 목사 박용길 장로 부부, 유원호 선생과 안순심 여사 부부가 정경모 선생 유택옆으로 이장, 세 분 의사의 합동묘역 조성됨. 이날 제례에서 정경모 선생 묘비를 2022년 4월 2일 제막하고 문익환·정경모·유원호 선생 세 분의 합동묘역을 조성하기로 발표했음
- 2021년 10월 19일~2022년 3월 21일
  자유언론실천재단에서 정경모 선생 묘비건립 1만원 성금운동을 벌여 237명으로부터 12,440,000원을 기부받음
- 2021년 12월~2022년 3월 15일
  일본에서도 정경모 선생 친지 중심으로 모금이 전개되어 21명 304,000엔 성금
- 2022년 2월 21일
  묘비 건립비용과 묘역조성 착수금으로 11,000,500원 지불
- 2022년 3월 25일
  묘비 제막 및 묘역조성 준비회의(이부영, 조성우, 이명준, 문국주, 서우영)는 4월 2일 정경모 선생 묘비를 제막하고 묘역조성 사업은 2022년 6월 12일까지 완공하기로 결정했음

시대의 불침번 정경모 선생의 생애

- 1924. 7. 11
  서울 영등포에서 태어남. 아버지 정인환, 어머니 양포근
- 1929~1947
  유치원, 보통학교, 경기중 졸업. 게이오대학 의학부 예과 입학, 본과 재학중 해방으로 귀국, 서울대 의학부 입학. 미국 조지아주 에모리대학 문리(文理)학부 입학, 고분자 화학 전공
- 1950. 10
  주미대사 장면의 요청에 응해 에모리 대학 휴학, 미군 통역관으로 도쿄 GHQ에서 근무
- 1951. 7
  나카무라 치요코 여사와 결혼. 문익환 목사 주례
- 1952. 6.25
  전쟁 판문점 휴전회담 통역관으로 근무. 주한미군이 기피인물로 해고하여 도쿄에 이송. 그후 서울에 귀국하여 대학강사 등으로 근무
- 1962
  한국정부 상공부 기술고문으로 근무, 울산석유화학단지의 건설 등에 참여
- 1970. 9~1978
  일본으로 망명, 박정희정권을 비판하는 신문투고 시작. 첫 저서 '어느 한국인의 뜻'(아사히신문) 출간.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기관지 '민족시보' 주필로 참여, 한국민주화운동 한일연대운동에 맹렬히 활동. 한민통에서 추방
- 1981~1989
  잡지 '씨알의힘' 창간, 연재기고문 '찢겨진 산하' 간행. 도쿄에서 몽양 여운형 선생 39주기 기념강연회 개최. 문익환 옥중 서간집 '꿈이 찾아오는 새벽'을 번역출판

- 1988. 12

여운형 선생의 차녀 여연구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초청으로 평양 방문

- 1989. 3

문익환 목사, 유원호 선생과 평양 방문, 김일성 주석, 허담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만나 '4.2남북공동성명' 발표. 브루스 커밍스 '조선전쟁의 기원' 번역 제1권 간행

- 1991~1992

독일 베를린을 방문, 황석영, 윤이상 씨와 재회

- 1994

문익환 목사 별세 후 정경모 선생도 뇌경색으로 입원

- 1995. 7

고 문익환 목사 부인 박용길 장로와 방북하여 김일성 주석 1주기 조문

- 1999~2020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기 민주 정부에서 정경모 선생 귀국 시도에 대해 정부가 요구한 준법서약서를 거부하여 귀국 무산. 결국 자신은 '최후의 망명객'으로 남겠다고 선언

- 2001

제6회 늦봄 통일상 수상, 동생 정성모가 대리 수상

- 2004

'정경모 선생 팔순 기념 강연과 축하모임' 리영희 브루스 커밍스 교수, 박형규 이인하 목사 등 참가

- 2006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 심포지엄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일본과 한국의 역할'에 한국에서 리영희 백낙청 함세웅 이해찬 씨 등이, 일본에서 김석범, 시라카와 세이지, 쇼지 쓰도무, 오다 마코도 씨 등이 참가

- 2010

한겨레 연재 회고록으로 정경모 자서전 '시대의 불침번'(한겨레 출판사) 간행. 번역서 '역사의 불침번-망명 한국인의 회고록'(번역 정강헌) 간행 후지와라 서점

- 201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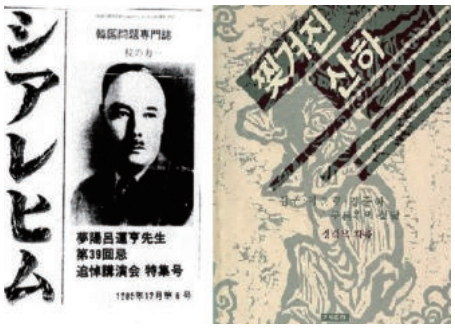
도쿄 한국YMCA회관에서'시대의 불침번'출판기념회 백낙청교수, 함세웅 신부, 임재경 조성우, 이철씨 등 참석

- 2021. 2.16

폐렴으로 요코하마 히요시의 자택에서 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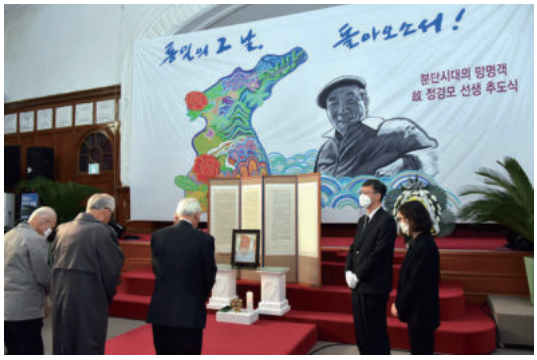
1951년 10월 판문점 정전회담 미군 통역관으로 참관

1981년 <씨알의 힘> 발행, 1986년 <찢겨진 산하> 해적판



2011년 9월 자서전 <역사의 불침번> 한일합동간행기념회

2019년 2월 9일 정경모 선생 부부와 히요시 자택 거실에서 이부영 이명준이 귀국문제를 논의했다



2021년 4월 `분단시대의 망명객' 유해 귀국 추도식

정경모 선생 선생 묘비건립에 함께하신 분

<한국>

안동운, 안재웅, 이수호, 이원락, 조현국, 이영순, 박덕진, 박성현, 최권행, 김종철, 박남수, 노재우, 정성헌, 원희복(민족일보), 고춘식, 신홍범, 김조년(인돈), 박강호, 이수현, 채옥경, 서용순, 이미숙, 노복미, 심영보, 양운신, 김태현, 박정두, 이문우, 이진영, 이창복, 조영숙, 강창구, 이규찬, 곽성옥, 지영선, 박기석, 정진섭(유정약국), 차보경, 김옥주, 이상술, 김승원, 임응숙,이희영, 여규현, 이윤(한빛교회), 오화선, 이상길, 김진아, 문승만, 채수환, 노원호, 장형숙, 이기원, 문정아, 임공인, 유민정, 정내현, 송병구, 한승동, 서지영, 홍갑복, 박상인, 강대선, 정상묵, 김철, 최성용, 이철, G,TECHNO도상, 류일형, 김문태, 박현석, 이부영, 이장주, 이영식, 권병대, 하정식, 최영선, 조능희, 김언경, 강성남, 김상훈, 현상윤, 이상필, 허육, 김춘효, 김기만, 권정숙, 김광윤, 조강래, 조신원, 고용조, 김관섭, 김덕현, 김백천, 김선문, 김수옥,. 김승범, 김영태, 김용철, 김지수, 김진옥, 김혜진, 김호균, 서상섭, 송재호, 송진섭, 신창기, 안민석, 안동준, 양재영, 여근식, 여상길, 여상화, 여원구, 여인걸, 여인성, 여인영, 여인호, 오정석, 유일중, 윤승용, 이동섭, 이두엽, 이래경, 이면춘, 이상기, 이석순, 이선우, 이선희, 이장섭, 이재섭, 이종석, 이철순, 이학노, 이화인, 임혁백, 임현진, 장영달, 장종하, 정동석, 정숙경, 정숙항, 정일용, 조영대, 진성준, 하정민, 황규식, 이희중, 박병하, 정재경, 김윤겸, 하제욱, 하은승, 이정욱, 이종만, 홍준기, 최혁, 김정애, 강형철, 정동채, 조은, 김성희, 서옥경, 이병남, 유수호, 양경식, 김정희, 정경용, 김기령, 정창훈, 정중석, 이점숙, 전기원, 김지섭, 서영숙, 심호택, 빙계숙, 배재흠, 이정애, 신현수, 박문자, 김만곤, 신인수, 조영철, 임수경, 양원재, 원승중, 정진기, 정정영, 최홍근, 강미현, 임채호, 백미령, 이동언, 정학숙, 박경호, 이태숙, 박근영, 임은숙, 손영익, 최민규, 정미영, 윤정희, 김정미, 이청원, 김쌍수, 김규탁, 나신환, 민현주, 이상의, 박영희, 이문희, 이응제, 박동기, 김애영, 김성아, 김대현(여울교회), 신재경, 김은미, 이자훈, 오세훈, 심영보, 박중기, 박향란(민족문제연구소), 윤영훈, 허동석, 박인자, 김춘식, 소선권재인, 오석균, 이기현, 허연숙, 평화의나무합창단

<일본>

조창순, 오세일, 감박부, 박용부, 다카바타게 오사무, 오가와 미쓰루, 미사이즈 요코, 모리구치 다케시, 박영호, 수기모토 히로코, 안병호, 강부원, 박경남, 조정열, 이시자카 고이치, 우쓰미 아이코, 강정나, 사이타마 합창단, 박찬호, 임철, 히라노 가즈미

모란통일동산을 만듭시다

끊어진 조국의 허리는 이어져야 한다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온몸을 던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문익환, 정경모, 유원호 세 분이 성큼 나아가신 길은
앞선 세대의 고통을 이어받고,
뒤따르는 세대에게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이제 세 분의 헌신을 계승하고,
세 분의 우정을 기억하기 위해
그 뜻을 기리는 묘역을 통일동산으로 조성하려 합니다.
함께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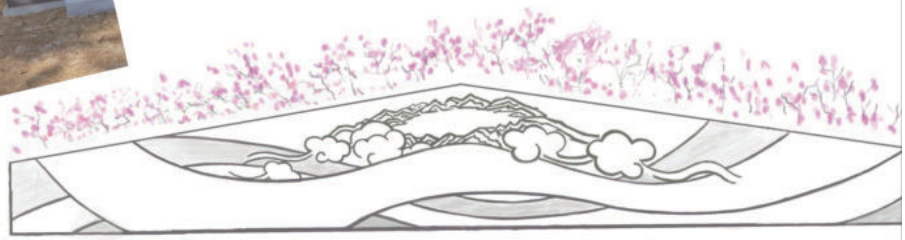
참여계좌

우리은행 1005-803-151831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모란 통일동산조성 추진위원회

백낙청, 함세웅, 임재경, 황석영, 이부영, 장영달, 조성우,
이명준, 문국주, 문성근 (일본)이자훈, 임철, 이철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자유언론실천재단,
한청협전국동지회, 전대협동우회 , 통일의집



통일동산 조성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이름은 통일동산에 영구히 새겨집니다